

## 이영표 前 국가대표, 건국대서 '청춘콘서트'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주제

뉴스1 제공 | 입력 : 2014.05.15 19:00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건국대 제공) © News1

건국대학교는 15일 2014 브라질 월드컵 KBS 축구해설위원인 이영표 전 축구국가대표 선수를 초청해 '청춘토크쇼'를 열었다고 밝혔다.

건국대와 방송사 KBS가 함께 개최한 이번 토크쇼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은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를 주제로 지난 25년간 축구인생을 통해 얻은 인생관과 성공스토리, 월드컵 축구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학생들과 함께 나눴다.

강연이 끝난 뒤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된 '프리토크'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은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 "어떤 일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번의 슬럼프를 거치게 된다"며 "슬럼프를 거친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슬럼프가 왔다고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 다시 한 번 노력하면 된다"며 "고교시절 하루 1000개의 줄넘기를 이단뛰기로 뛰고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 훈련한 것이 국가대표 발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조언했다.

토크쇼에 앞서 이영표 해설위원은 송희영 건국대 총장을 찾아 학교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송희영 총장에게 자신의 국가대표 등번호 '12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선물했다.

건국대 동문인 이영표 해설위원은 지난 9일 서울 보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청춘토크'를 연 바 있다. 오는 30일에는 서울대를 찾아 세번째 '청춘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